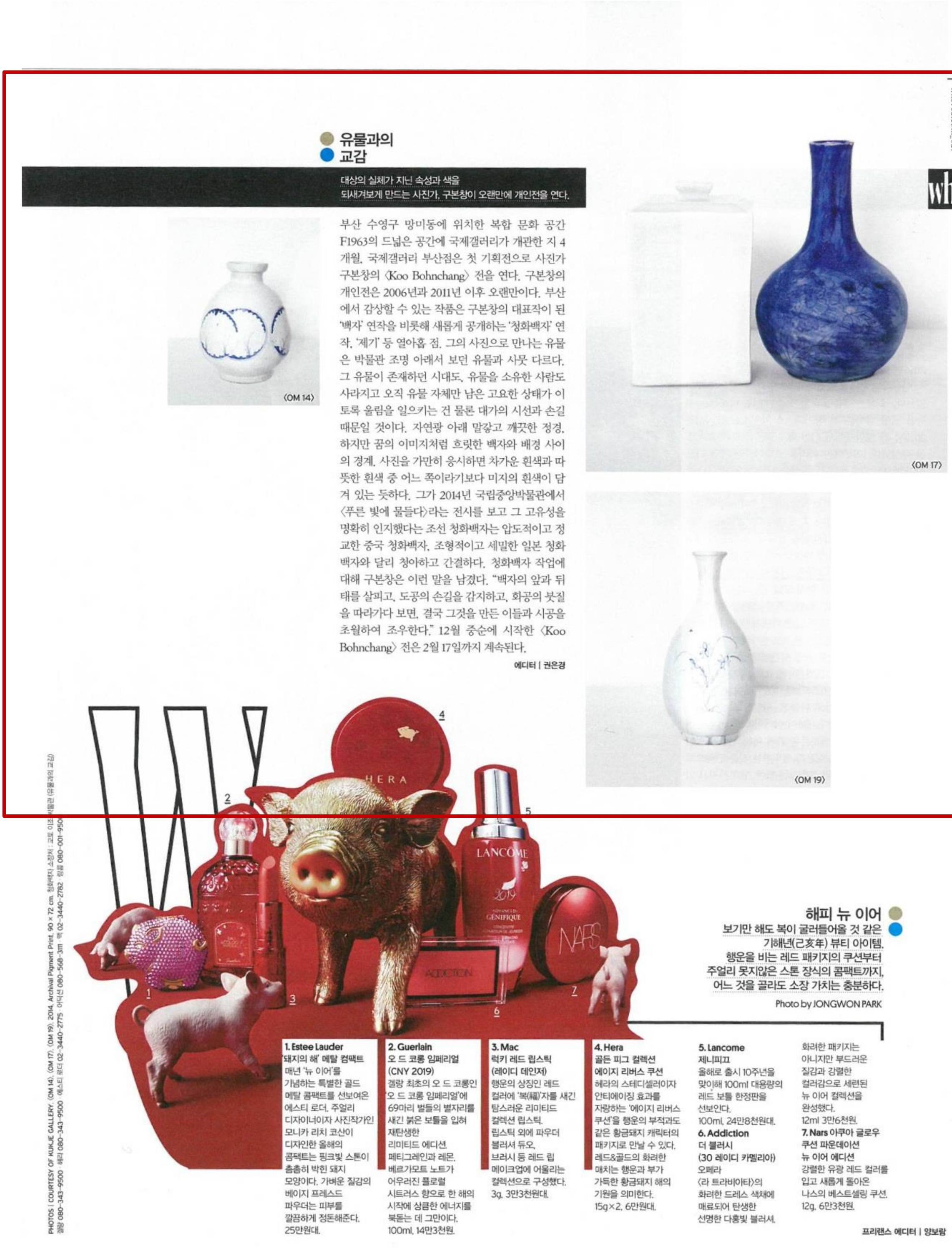
유물과의 교감

January, 2019 I 권은경 에디터



when

유물과의 교감

대상의 실체가 지닌 속성과 색을 되새겨보게 만드는 사진가, 구본창이 오랜만에 개인전을 연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 F1963의 드넓은 공간에 국제갤러리가 개관한 지 4개월. 국제갤러리 부산점은 첫 기획전으로 사진가 구본창의 〈Koo Bohnchang〉 전을 연다. 구본창의 개인전은 2006년과 2011년 이후 오랜만이다. 부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은 구본창의 대표작이 된 '백자' 연작을 비롯해 새롭게 공개하는 '청화백자' 연작, '제기' 등 열아홉 점. 그의 사진으로 만나는 유물은 박물관 조명 아래서 보던 유물과 사뭇 다르다. 그 유물이 존재하던 시대도, 유물을 소유한 사람도 사라지고 오직 유물 자체만 남은 고요한 상태가 이토록 울림을 일으키는 건 물론 대가의 시선과 손길 때문일 것이다. 자연광 아래 말갛고 깨끗한 정경. 하지만 꿈의 이미지처럼 흐릿한 백자와 배경 사이의 경계.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면 차가운 흰색과 따뜻한 흰색 중 어느 쪽이라기보다 미지의 흰색이 담겨 있는 듯하다. 그가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푸른 빛에 물들다〉라는 전시를 보고 그 고유성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조선 청화백자는 압도적이고 정교한 중국 청화백자, 조형적이고 세밀한 일본 청화백자와 달리 청아하고 간결하다. 청화백자 작업에 대해 구본창은 이런 말을 남겼다. "백자의 앞과 뒤태를 살피고, 도공의 손길을 감지하고, 화공의 붓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만든 이들과 시공을 초월하여 조우한다." 12월 중순에 시작한 〈Koo Bohnchang〉 전은 2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에디터 | 권은경

〈OM 14〉

〈OM 17〉

〈OM 19〉

해피 뉴 이어

보기만 해도 복이 굴러들어올 것 같은 기해년(己亥年) 뷰티 아이템. 행운을 비는 레드 패키지의 쿠션부터 주얼리 못지않은 스톤 장식의 콤팩트까지, 어느 것을 골라도 소장 가치는 충분하다.

Photo by JONGWON PARK

1. Estee Lauder
'돼지의 해' 메탈 컴팩트
매년 '뉴 이어'를 기념하는 특별한 골드 메탈 콤팩트를 선보여온 에스티 로더.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인 모니카 리치 코산이 디자인한 올해의 콤팩트는 핑크빛 스톤이 촘촘히 박힌 돼지 모양이다. 가벼운 질감의 베이지 프레스드 파우더는 피부를 깔끔하게 정돈해준다. 25만원대.

2. Guerlain
오 드 코롱 임페리얼 (CNY 2019)
겔랑 최초의 오 드 코롱인 '오 드 코롱 임페리얼'에 69마리 벌들의 별자리를 새긴 붉은 보틀을 입혀 재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 페티그레인과 레몬, 베르가모트 노트가 어우러진 플로럴 시트러스 향으로 한 해의 시작에 상큼한 에너지를 북돋는 데 그만이다. 100ml, 14만3천원.

3. Mac
럭키 레드 립스틱 (레이디 데인저)
행운의 상징인 레드 컬러에 '복(福)'자를 새긴 탐스러운 리미티드 컬렉션 립스틱. 립스틱 외에 파우더 블러셔 듀오, 브러시 등 레드 립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3g, 3만3천원대.

4. Hera
골든 피그 컬렉션 에이지 리버스 쿠션
헤라의 스테디셀러이자 안티에이징 효과를 자랑하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을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황금돼지 캐릭터의 패키지로 만날 수 있다. 레드&골드의 화려한 매치는 행운과 부가 가득한 황금돼지 해의 기원을 의미한다. 15g×2, 6만원대.

5. Lancome
제니피끄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이해 100ml 대용량의 레드 보틀 한정판을 선보인다. 100ml, 24만8천원대.

6. Addiction
더 블러시 (30 레이디 카멜리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화려한 드레스 색채에 매료되어 탄생한 선명한 다홍빛 블러셔. 화려한 패키지는 아니지만 부드러운 질감과 강렬한 컬러감으로 세련된 뉴 이어 컬렉션을 완성했다. 12ml 3만6천원.

7. Nars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뉴 이어 에디션
강렬한 유광 레드 컬러를 입고 새롭게 돌아온 나스의 베스트셀링 쿠션. 12g, 6만3천원.

프리랜스 에디터 | 양보람

PHOTOS | COURTESY OF KUKJE GALLERY. 〈OM 14〉, 〈OM 17〉, 〈OM 19〉, 2014, Archival Pigment Print, 90 × 72 cm. 청화백자 소장처 : 교토 이조박물관 (유물과의 교감)
겔랑 080-343-9500 · 헤라 080-343-9500 · 에스티 로더 02-3440-2775 · 어딕션 080-568-3111 · 맥 02-3440-2782 · 랑콤 080-001-9500